

## 센슈 및 오사카(Osaka) 남부산지의 정번 두꺼운 천

### - 중국품의 품질불량으로 일부가 부활

오사카 후(府)의 센슈(泉州) 및 오사카 남부 산지에서는 요즘 정번품(定番品) 일부에 대하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서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제품이 품질불량으로, 품질이 좋은 일본상품을 다시 살펴보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45수 합사 웨더 클로스(weather cloth), 10~16수 스트레치 능직 등 두꺼운 직물에서 그런 경향이 눈에 띈다.

중국 제품의 품질 불량 원인은 흠이 생긴 바디를 빨리 수리하지 않거나, 교체를 적시에 잘 안하거나, 스트레치사의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초보적인 관리부족 등으로서 두꺼운 직물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거나 새로운 직기를 도입한 공장에서는 품질문제가 별로 없다. 두꺼운 직물 생산에 익숙해진 제직공장은 생산관리가 허술하거나, 긴장이 풀려서인지, 품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정번 두꺼운 직물(定番厚地織物)은 코스트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여, 일본내에서 생산하는 직포공장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내에서 생산하여 수요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일본내 생산 비율을 높이는 상사나 도매상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직공장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보다 다소 값을 올려 받아도 채산면에서는 매력력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값이 좀 올라도 소로트이면서 단납기(短納期) 주문뿐이면 조업이 안정되지 않으며, 로스(loss)가 생겨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주문이라도 여럿 합쳐 생산이 가능한 ‘정번 두꺼운 직물’이 부활되

기를 기대하는 제직공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품질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분야나 단골 고객에게는, 일본상품을 공급하고, 기타 수요에 대하여는 중국 제품을 사용케 하는 사업분담이 ‘정변 두꺼운 직물’에서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가능성이 엿보인다.♣